

사 랑

| 김흥호 |

지식, 학문, 믿음, 물질 등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이렇게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사랑의 성격을 어머니의 마음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고린도전서 13:1~7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 않습니다.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냅니다.

히랍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네 가지로 썼습니다. 물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에피투미야’라는 낱말을 사용했고, 남자를 사랑한다, 여자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에로스’, 학문을 사랑한다, 진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필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아가페’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가페’라는 말은 이 복음서에서 쓸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바울의 서한 속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이지만 차차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다가 자꾸자꾸 중점을 두어 아가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간의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이러한 사랑의 내력을 좀 염두에 두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전부가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세 절은, 내가 천사의 방언을 말하고 여러 가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깊은 철학을 이해하고 넓은 지식을 갖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또 그다음에는, 내가 내게 있는 재산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 마디뿐입니다.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요즘 학생들로 말하면 어학을 열 가지쯤은 할 수가 있어, 영어도 할 수 있고, 독일어도, 프랑스어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어학을 많이 할 수 있어 아무 책이나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는가 하면 역시 그것만 가지고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철학이나 종교, 과학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든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든가, 또 철학이니 과학이니 신학이니 종교니, 이런 모든 학문을 가지면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가. 그것들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뭣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직장에서 상당히 신임을 얻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전신을 바치는, 그 직장을 위해서 혹은 그것이 국가와 관련될 때는 국가를 위해서, 세계와 관련되면 세계를 위해서 자기 전체를 바쳤다, 또는 평생을 충성하고 살았다고 할 수 있으면 또 만족할 수 있는가.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어학도 지식도 좋은 직장도, 그것만 가지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한가. 역시 아닙니다. 아니면 무엇인가. 뭣이라고 하는, 그 무엇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뭣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데 그 무엇을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말한다면, 그것이라고 하는, 그 무엇을 가지면, 어학을 열 나라 말이나 한다든가, 과학이니 철학이니 종교니 다 가지고 있다든가, 무슨 직장이니 사업이니 다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그것이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학이나 지식, 직장,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촛불 같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태양이다. 나중에 우리가 그 태양을 가져보면 이 촛불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촛불은 좀 꺼버려야 오히려 연기가 안 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는 ‘무지의 지’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촛불은 꺼버려 무지가 되어야 태양이 더 빛난다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학자 중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한 학자였습니다. 또 굉장한 신앙가이고, 그 당시의 법황한테까지도 아주 신임을 받아 법황을 가르치는 굉장한 인물이었지요. 우리가 중세기 최대 인물을 꼽을 때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어거스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가톨릭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도 전부 토마스 아퀴나스의 것뿐이죠. ‘토미즘’이라고 하는, 소위 《신학대전》이라고 해서 그 시대 신학을 총 집대성한 거대한 책을 쓰고 마지막 몇 장 남았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날 밤에 그가 기도하는 방에 가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빛나기 시작했고, 빛나는 십자가를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자기 앞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지금까지 써오던 것을 일절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몇 장 남은 것을 마저 써주면 후세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면, “내가 철이 없어서 그것을 썼었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런 것들이 다 지푸라기만도 못한 걸, 그것을 쓰느라고 일생을 소모했으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한탄하고는 쓰는 일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금까지의 철학과 자기의 신학 일체를 보았을 때 그것은 지푸라기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에 의하면 온 우주를 얻어도 그것을 못 얻으면 살아서 뭐하냐, 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에 의하면 ‘사랑’이라는 말로 표시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는 그것을 사랑이라 해서 해결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바울이 사랑이라고 했으니, 사랑이라고 해 두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좌우간 동양식으로 하면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옛날부터 동양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거, 그거’라고 했습니다. 그거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 보기 전에는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가 하면, 그것을 체험해 본 후에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니 사업이니, 이것들이 다 지푸라기 정도로 여겨지니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것,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라도 태양이라고 그런다면 다른 것은 다 촛불 정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그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니 뭐니 뭐니, 바울은 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과학도 배운 사람이고, 철학도 신학도 공부한 사람이고, 그 당시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그것을 만나고부터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무엇인가. “이것이 다 분토일 뿐이더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사랑이라는 말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 없으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혹은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바꿔 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이들이 장난감도 가지고, 먹을 것도 가지고, 옷도 가지고, 친구도 있고, 다 있어도 안 되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이 바로 엄마이듯이. 엄마 없으면 그까짓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친구들은 왔다가는 것이고, 장난감은 한참 가지고 놀면 깨지는 것이고, 밥 먹으면 조금 있다 또 배고픈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정말 어린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엄마입니다. 그 엄마, 혹은 그것, 그것이 지금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지금까지

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1절, 2절, 3절입니다.

그다음에 4절, 5절, 6절, 7절에는 15가지 사랑의 성격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또 5절은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이고, 6절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같이 기뻐하며” 마지막 7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입니다. 모두 해서, 15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으니 그것은 4절에 있는 “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6절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7절에는 “오래 견딘다.”

그러니까 그건 바울이 무엇을 보며 썼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바울은 자기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특징이 무엇인가. 투기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투기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남이 잘나면, 남이 뭘 가지고 있으면 배가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홍부전」에서 홍부가 큰 집을 가지고 있어, 놀부가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 가서 빼앗아 와야지 하는 식의, 즉 남 잘되면 배 아픈 것, 그것을 투기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에게는 다 투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이 잘되면 무엇인지 자기가 놀리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합니다. 그런 중에도 남이 잘되어서 기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 하면 부모님뿐입니다.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기자승어부(其子勝於父),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고 할 때에 부모는 최고로 기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

보다 낫다고 하면 배가 아파서 못 견디겠는데도 자기 아들딸이 자기보다 낫다고 하면 그렇게 기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자에게 어떤 사람이 “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어 보았더니 “별거 있느냐. 그저 아버지보다 나아지면 그것이 효지, 그것이 제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하였습니다. 남이 잘되면 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꼭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만은, 아버지의 마음속에만은 자식들이 자기보다 잘될 때 배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정말 부모님과 같은 마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집에서 먹을 것이 생기면 아이들만 주지 어머니들은 잘 안 먹습니다. 그저 맛있는 것이 있으면 다 너 먹어라, 너 먹어라 하면서 아이들만 자꾸 먹이지 어머니들은 하나도 안 먹는데 바로 이것이 또 부모 마음입니다.

군대에 가면 아침에 밥을 쭉 담아 놓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밥이 더 많은 것 같으면 가서 조금 덜어 와야지 배가 아파서 못 견디지요. 저도 군대에 나갔을 때 저쪽 밥이 제 것보다 조금 더 많다고 싸움적이 있습니다. 좀 많은 밥그릇을 가진 사람보고 그것 이리 좀 가져오라고 하니 안 가져온다고 해서 싸움을 하면서 먹은 후에 그날 싸우러 나갔는데 저녁때 그 사람이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가 막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왜 진작 내 밥을 한 술 덜어서 그 사람에게 주지 못했단가. 밥 조금 더 많이 먹겠다고 싸움을 했는데 친구가 그만 그날 오후에 죽었던 말입니다. 어이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해

서든 자기가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기업체에서 땅을 4억만 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1억만 평이었다고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데 단 자기는 안 먹어도 좋고, 남을 먹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있으니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찾아보면 거기서 찾아야지 어디서 찾아보겠습니까. 온 세상이 무엇인가 다 잘못되었다 해도, 그래도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만은 참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6절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인데, 그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부모님 마음에는 아들딸 잘되는 것이 제일 즐겁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굶어도 좋고, 자기는 안 먹어도 괜찮고, 그저 자식들만 잘되면 그렇게 기쁜 것이 없다는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오래 견딘다는 것, 무슨 어려움이 와도 계속 견디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역시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 참 어려운 말이지만 어머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말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고 느껴집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15가지나 세밀하게 쓰는 것은 바울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쓰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역시 이 엄마 같은 분이 아닌가. 우리 엄마의 마음이 곧 이렇지 않은가. 그래 쓴 것이 4절부터 7절까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머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어머니의 마음을 알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들이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그 고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시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끝) 

- 이 글은 《민음의 힘》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1919-2012) |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향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